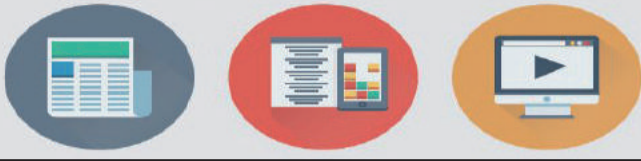


## 3» 조인원 총장 인터뷰



## 8» 창간기념 대학주보 설문조사



## 7» 개교기념 기고



### 문재인 동문(법률학 1972) 제19대 대통령 취임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동문이 지난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동문은 우리학교 법률학과 72학번이며 김정숙 여사도 성악과 74학번 동문이다. (사진=중앙일보)

# 체육관 개관까지, ‘30년의 약속’을 짚어보다

## 종합체육관의 역사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국제】종합체육관이 오는 5월 17일 오후 4시 개관을 앞두고 있다. 개관식에선 1단계 사업 완성 및 2단계 사업 계획 보고, 법인 이사장 격려사 및 총장 기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체육관은 SPACE21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지금의 종합체육관은 30여 년 전부터 계획되고 이름과 형태를 바꾸오면서 2017년 5월 마무리된 결과물이다.

‘경희대 체대(체육대학)’는 고유 명사와도 같이 불리며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편, 그 이면의 체육시설 부족의 문제는 체대생들의 슬픈 그늘이었다. 그 시작은 체육대학과 체육과학대학이 따로 존재한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 1983년 두 체육 단과대학과 2001년의 통합

본래의 체육대학은 1955년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에 위치했고, 1979년 당시 국제캠퍼스(국제캠)에는 체육과학대학이 설립돼 체육학과와 1983년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됐다. 이후 2001년 서울캠 체육대학과 국제캠 체육과학대학은 중복되는 학과를 정리하고 국제캠으로 통합·이전된다. 체육과학대학은 다시 체육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 체제에 이르렀다.

국제캠이 설립된 1979년 이후 1980년대 초부터 종합체육관 논의는 시작됐다. 당시 체육대학 교수로 있었던 유승희(체육학) 전 학장은 “국제캠에 강당 기능을 가진 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계획은 1980년대 초부터 논의가 오갔다”며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한 이후 1990년대에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도에 체육대학장을 맡게 되

면서 국제캠으로 보직을 옮길 당시 조영식 학원장께 국제캠 강당 시설 부족과 관련해 종합체육관 건설을 부탁드렸는데, 이에 응해주시면서 논의를 이어나갔다”고 덧붙였다.

종합체육관 계획은 국제캠 설립 당시부터 계획돼오다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의 목소리와 서울캠 체육대학의 이전 논의가 맞물리면서 진척됐다. 체육대학 전임기(태권도학) 학장은 “원로 교수들을 통해 듣기로는 종합체육관 건설은 이전 조영식 학원장께서 체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고 계산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학원장께서 ‘건전한 몸에서 건전한 사고’가 이뤄진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캠 설립 당시부터 학원장께서 체육시설 설립에 대해 이미 복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마스터플랜에서 SPACE21까지

2006년 9월 7일, 체육대학 학생회

는 당시 기획조정실에 ‘빠른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체대학생들의 수업 및 연습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14일 기획조정실은 서면으로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태권도장 및 종합체육관 건립은 2007년도 1학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해 건설 추진 ▲골프연습장은 2007년 4월경 공사 착공 진행 ▲스포츠 콤플렉스 설립과 관련해 9월 중 부지 조성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11월 중순 이내에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은 양 캠퍼스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구체화됐다. 유승희 전 학장은 “당시 종합체육관 건설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발전기금 역시 모였다”며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진이 미뤄지자 학생회가 학교 측에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4면으로 이어짐

## 경희와 함께 한 문재인의 삶

### 대통령·영부인 동시 배출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지난 9일 19대 대통령선거가 우리학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법률학 1972)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자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단일화 없이 유력 후보들이 5명이나 나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을 얻어, 24%를 얻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 951표 차이로 크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든 뽑지 않았든 우리학교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사실에 학교는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선거 이틀날 우리학교 정문에는 당선 축하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가 붙었다. 또한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1일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연 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총동문회에 감사메시지로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종 당선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문 대통령의 일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됐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일화는 문 대통령의 학창시절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영부인 김정숙(성악 1974) 여사와의 일화였다. ‘법조인’에서 처음 만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유신체제 시절 총학생회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끌던 도중 문 대통령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자 김 여

사가 다가가 닦아줬다고 한다. 캠퍼스 커플로 만난 두 사람은 7년의 열애 끝에 1981년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외에 우리 학교 설립자인 고(故) 조영식 박사와의 일화도 유명하다. 문 대통령이 서울대 입학에 낙방한 당시 조 박사가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법대수석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또한 시위와 구속으로 제적된 상황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그는 유치장 안에서 합격증을 받았다. 1980년 5.17조치 당시 시위로 청량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문 대통령은 조 박사의 신원보증 아래 극적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졸업 후 문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합동법률사무소 운영을 시작으로 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는 당선을 축하하며 “현재 학교의 자량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자량이여주시길 바랍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서울캠 퍼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고 대학생과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선거과정에서의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정책선거가 열렸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소수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이틀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문 대통령은 5년 후인 2022년 5월 9일까지의 임기를 시작한다.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카카오톡 오픈ID : 대학주보
-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 트위터 : @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사령

66기 수습기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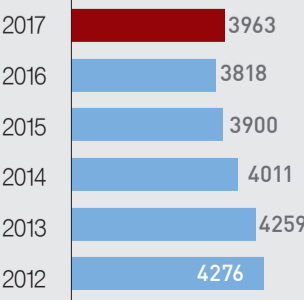
- ▲김지담(사학 2017)
- ▲이진아(아동가족학 2016)
- ▲조우형(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 강좌 수 5년 만에 늘었지만,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필요

## 대학알리미 공시분석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연도별 강좌수 추이



2017학년도 1학기 전체 강좌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소형강의(수강인원 20명 이하) 비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도 개선돼 수치상 지난해 1학기에 비해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이번 학기 총 강좌 수는 3,963개로 지난해 1학과 비교해 145개 늘었다. 총 강좌 수는 지난 2012학년도 1학기 4,276개에서 매년 적게는 20개 많게는 200개씩 감소를 거듭했고, 지난해 1학기 3,818개까지 줄었던 바 있다. 매년 학생 대상 만족도 조

사에서 강좌 수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만큼 향후 강좌 수가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강의의 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항목인 ‘학생 규모별 강좌 수’를 살펴보면 이번 학기 소형강의 비율은 24.8%로 지난해 1학기 21.4%와 비교해 약 3.4%p 높아졌다. 또한 중대형 강의(수강인원 50명 이상 100명 이하) 비율 역시 지난해 1학기 24.8%에서 22.1%로 줄었다. 소형강의 비율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2016년 캠퍼스디자인 과목이 신설되고, 글쓰기와 대학역으로 인해 소형강의 비율이 늘

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소형강의 비율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017학년도 1학기 각 대학의 소형강의 비율은 ▲한국외국어대 51.8% ▲한양대 48.5% ▲성균관대 33.8% ▲연세대 32.6% ▲서강대 29.1% ▲고려대 28.7%다.

한편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난해 대학공시가 이뤄진 이래 처음으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50%를 넘긴 56.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소폭 상승한 56.9%를 기록했다.